

전쟁 속 피어난 동요...한국 동요사 한 페이지 열다

김대중 민주평화 학술회의 29일 화순 김대중기념공간

광주문화재단 오늘 콜로키움 양림동 출신 작곡가 정근 조명 '동글게 동글게' 등 269곡 작곡



생전의 정근 선생이 '구름' 시비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유년시절 광주 양림동 골목은 그에게 놀이터였다. 그 시절은 황금 같은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양림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치던 풍금 소리는 생생하다. 아마도 풍금소리의 여운을 기억하는 어린시절은 훗날 그에게 동요 창작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양림동 출신 동요 작곡가 정근(1930-2015). 광주방송 새로나 합창단 창단, 소록도 나환자 위문 공연, KBS '모이자 노래하자' 방송작가, 어린이 그림책 출판활동, 269곡 작곡...

정근은 우리나라 동요사 한 페이지를 연 동요 작곡가다. '동글게 동글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등 수많은 명곡을 썼다. 그를 빼놓고는 한국 동요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정근 선생의 일생을 다채롭게 만나는 콜로키움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28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정근의 동요와 어린이문화운동'을 주제로 정근의 일생을 조명한다.

이날 행사는 2021광주콜로키움 '광주 근현대 예술가들' 두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정철훈 작가(전 언론인)가 발표를 한다.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어린이 교육과 동요 보급은 물론 어린이 그림책 출판운동 등 전개했던 정 선생의 다채로운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정철훈 작가는 발표를 앞두고 연결된 전화에서 "정근 선생은 한국전쟁의 피해

자인 동시에 월북 가족 연좌제의 피해자였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쟁과 동요'라는 두 개념의 충돌 속에서 동요운동에 뛰어 들었다는 사실은 전후 한국동요사의 한 배경을 되새기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의 피해자, 월북 집안의 피해자라는 반대급부에서 동요를 선택했다"며 "선생에게 동요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순수한 세계였다"고 덧붙였다.

정근은 지난 1930년 양림동에서 하동 정씨 순극과 온양 정씨 잠이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큰형 중재(1917~1980)는 북한 영화 '무용가 최승희'를 연출한 초대 서기장 출신 영화감독이며 둘째형 추(1923~2013)는 차이콥스키 음대에서 최초로 졸업논문 만점을 받은 음악가다.

아마도 가계에 흐르는 그러한 예술적 분위기가

정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근은 1936년 광주 양림교회 부설 양림유치원에 입학해 기독교 신앙을 비롯해 근대 교육을 받는다. 1937년 광주 서석공립보통학교, 1943년 광주서중에 각각 입학했으며 이후 1952년 대구경북대학 사범대 입학, 1954년 동 대학 전시연대학과 2년을 수료한 것으로 돼 있다.

정 작가는 "정근 선생은 광주 출신이지만 전파동요시대 작가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지만 이후 전파가 일반화되고 동요가 전국적으로 불리게 되면서 지역을 초월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이 어린이 동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생보육교사 근무 경험과 무관치 않다. 사연은 이렇다. 광주 최초 여사 헌덕신이 1951년 광주에 신생보육학교를 설립한다. 신생보육학교는 유아교육 교사를 비롯해 전쟁고아들을 돌볼 사회복지요

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 1954년 정근은 헌덕신의 아들 최상욱과 함께 신생보육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서 동요를 작곡하게 됐다. 게 정 작가의 설명이다. "당시만 해도 일본 노래를 많이 부르던 시절이라 정근은 '우리말 동요를 작곡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우체부 아저씨'라는 동요도 탄생한다. "'우체부 아저씨'는 이산가족을 찾는 동요다. 우체부 아저씨가 전달하는 이산가족의 아픔, 이산의 비애가 담겨 있는 노래다. 광주에서 1955~1956년 '우체부 아저씨'를 작곡해 신생유치원에 보급했다."

1956년 정근은 당시 광주 중앙초등 음악교사인 이은열과 함께 광주방송 '어린이노래회'를 창립한다. '어린이노래회'는 세 차례 서울 공연을 통해 음악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1959년 '새로나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된다.

정 작가는 "새로나합창단은 해마다 빼놓지 않고 '음악의 밤'을 열어 광주시민에게 노래를 선사했다"며 "특히 1963년 8월 소록도 나환자들의 정착사업인 '오마도'를 찾아가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30대 중반부터 정근은 방송작가로도 활동한다. KBS 간판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던 '모이자 노래하자' 등의 작가로 일했으며 KBS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기도 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출판사 편집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림책 '자장자장', '마고할미' 등을 펴내 출판활동에도 매진했다.

정 작가는 "정근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 방송인이었지만 그의 대표곡은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애청되었다"며 "동시나 동요 등 아이들을 위한 작품은 교수나 학자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체험을 통해 탄생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군이 주최하고 김대중추모사업회가 주관하는 '2021 김대중 민주평화 학술회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대중기념공간(화순군 도곡면 온천2길 44)에서 열린다.

'대통령의 지위, 지도자의 책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김대중 연대기 가운데 제7대 대통령후보(1970년)시절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초점을 맞췄다.

학술회의에서는 '후광학 창시와 김대중 사상체계' (황보윤식 함석헌평화연구소장),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민주주의자 김대중'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평화주의자 김대중'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하나의 조국, 하나의 겨레를 향한 대장정'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대통령 중심제의 검증과 변혁'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서는 정영일 동강대 교수, 림수섭 민주지도자, 최수동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장,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기획실장, 박상수 전 전남일보 주필, 문기전 광주 YMCA 사무총장, 서정훈 광주 NGO 센터장이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안·월곡·비아동서

인문마을 프로젝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학적 관점에서 삶과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열린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사학과 교수)은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신안동과 월곡2동, 그리고 비아동에서 인문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이벤트미디어(변선화 대표)와 협력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신안동 노야온인문마을에서는 '제1막 나의 마을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기'와 '제2막 감성의 장에서 커뮤니케이션하기'를 목표로, 마을 곳곳의 장소를 역사적 관점과 서사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마을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이해를 묻고 되짚어 보면서 미래의 마을을 상상해본다.

월곡2동 고려인문마을에서는 '기억의 지도 만들기'를 주제로 월곡2동과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기억을 수집하며 마을을 다층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창조하는 장소로 재구성한다.

비아동 까망인문마을에서는 '제1막 가족과 이웃: 소중한 사람들과의 눈맞춤'과 '제2막 나의 역사: 지나온 장소와 사람에 대한 기록'을 주제로, 주변의 관계 속에서 삶을 반추하고 의미를 성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아이 주제 토크 콘서트·젠더 포럼 전개

창립 10주년 비전 선포식

'성평등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하 재단)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6월 출범한 재단은 그동안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 광주공동체'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 여성문화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광주여성재단'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2020년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로 사무공간을 이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시책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재단 3층 북카페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0년 발전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더 광주 더 성평등'을 주제로 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나비 조형물 퍼포먼스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질 방침이다.

기념식 후에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만나 창립 10주년을 자축할 예정이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인문마을'을 통해 본 재

단 10년의 기억과 기록' 교류 행사(7월 7일 오전 10시30분) ▲대구여성가족재단·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지역여성 경제활동 및 일·생활 균형' 여성가족정책포럼 I (7월 13일 오후 1시30분) ▲'빅데이터 젠더 이슈' 여성가족정책포럼 II (7월 13일 오후 4시) ▲'미래의 아이와 재단에게'를 주제로 한 부모 토크콘서트(7월 13일 오전 10시30분) ▲'젠더 관점으로 본 그린뉴딜' 포럼(7월 14일 오후 2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하반기 출간 예정) 등이 있다.

재단은 이밖에 창립 10주년 기념 홍보영상과 엽서, 여성·가족 관련 정보를 담은 뉴스 카드 등을 제작·배포해 성평등 정책과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50.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